

뿌리기업 활성화 위한 소통 나서

우범기 전주시장, 뿌리기업 주요 단체 소속 24개사 대표와 간담회 갖고 애로사항 등 청취

우범기 전주시장은 사회혁신센터 컨퍼런스룸에서 송병삼 전주금속가공소공인협회장과 김강석 소공인융합협동조합장 등 전주시 뿌리기업 주요 단체 소속 24개사 대표를 초청해 '뿌리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민선8기 시정목표인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의 가치로 이룬 주요 성과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향후 계획을 함께 공유했다.

이와 관련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업종을 의미하며, 시는 지난 8월 뿌리산업특화단지에 지정돼 이달 중(가칭)사단법인 정밀가공특화단지협회를 설립하고 내년 2월부터 공모사업



우범기 전주시장은 사회혁신센터에서 전주시 뿌리기업 주요 단체 소속 24개사 대표를 초청해 '뿌리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을 추진하는 등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여건에

대해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3고(高)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뿌리기업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참여한 뿌리기업 대표들은 △전주 소공인 스마트 협업 단지 구축 △전주시 도시형소공인 자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역 뿌리산업의 발전방안과 애로사항을 건의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제조업의 기반인 뿌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모색을 통해 전주형 뿌리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필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호성 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한옥마을 비빔공동체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옥마을 태조로삼거리에서 한옥마을 여행객과 함께하는 '한옥마을 감사축제'를 진행했다.

한옥마을 감사축제 '풍성'

전주한옥마을 비빔공동체, 공연·공예체험 등 다채롭게 진행

전주한옥마을 비빔공동체(이사장 강갑석)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옥마을 태조로삼거리에서 한옥마을 여행객과 함께하는 '한옥마을 감사축제'를 진행했다.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를 맞은 이번 감사축제는 한옥마을 주민과 상인 등으로 구성된 전주한옥마을 비빔공동체가 전주한옥마을의 오늘을 있게 한 여행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빔공동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3년 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한옥마을 감사축제를 준비하며 코로나 이후에도 변함없이 전주한옥마을을 찾아준 여행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양한 체험행사를 준비했다.

감사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은 △

연 △떡매치기 및 인절미 만들기 체험 △전통차 시음 △공예 체험(한지 뜨기, 라탄도어벨 만들기, 키팅 만들기, 원석팔찌 만들기, 한지 고무신 만들기 등) △지역예술가의 버스킹공연 등 여행객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감사축제를 맞아 매주 토요일~일요일 낮 12시부터 2시간씩 운영돼온 한옥마을 방송국도 축제에 참여한 여행객들의 신청곡과 다양한 사연을 받는 방식으로 방송을 진행했다.

전주한옥마을 비빔공동체는 앞으로 전주한옥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 지속가능한 여행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한옥마을 주민의 화합과 여행객들과의 소통을 위한 문화콘텐츠 발굴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김욱기 기자

'다채로운 같이, 가치 아울터전시'

전주시, 온두레 완산아울터서 온두레공동체 작품전시회 진행

전주시를 주 무대로 활동해온 온두레공동체들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전시회가 열렸다.

전주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0일간 전주한옥마을 인근 온두레완산 아울터에서 온두레 공유공간인 아울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동체가 참여하는 전시회 및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다채로운 같이, 가치 아울터전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온두레

공유공간인 '온두레 아울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전주시공동체협의회 소속 공동체들과 올해 온두레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참여한 공동체 등 11개 공동체가 참여해 그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제작한 수공예품과 한복인형, 한지공예품, 친환경 화분, 테라리움, 그림 등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또한 전시회 기간 중 주말에는 완산아울터를 방문하는 전주시민과 한옥

마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보는 요리 및 수공예품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

시는 전주형 공동체인 온두레공동체의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공동체를 위한 공유공간인 아울터를 널리 홍보하는 것은 물론, 전시작품을 감상하는 시민들에게 공동체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완산아울터와 덕진아울터, 첫마중길아울터 등 3곳의 공



전주시는 지난 3일부터 10일간 전주한옥마을 인근 온두레 완산 아울터에서 다양한 공동체가 참여하는 전시회 및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유공간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코로나19로 침체했던 아울터의 활성화를 꾀하고, 온두레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보건소 마음치유센터, 마음 건강 시민강좌 개최

전주시가 마음 건강 시민강좌를 통해 인간관계에 치진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전주시보건소 마음치유센터는 지난 3일 덕진구청 강당에서 이인수 심리상담연구소 앤아더라이프 대표교수를 초청해 '마음 건강 시민강좌'를 개최했다.

강좌에서 이인수 교수는 '관계에서도 건강한 심리적거리가 필요합니다'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참여한 시민들에게 관계에 대한 인식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날 강좌에서 상대방과의 건강한 심리적 관계의 의미에



전주시보건소 마음치유센터는 지난 3일 덕진구청 강당에서 이인수 심리상담연구소 앤아더라이프 대표교수를 초청해 '마음 건강 시민강좌'를 개최했다.

대해 설명한 후,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 △올바른 관계 거리 유지하는 방법 등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욱기 기자

유치원생 대상 캐릭터 뮤지컬 공연으로 구강건강 교육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진선)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 3일 전주비전대학교 비전관 대강당에서 평화동 내 8개 유치원 원아 450명을 대상으로 '치카치카 충치소동' 캐릭터 뮤지컬 공연을 2회에 걸쳐 선보였다.

'치카치카 충치소동' 캐릭터 뮤지컬은 어느 마을에 나타난 충치 몬스터가 치아 건강에 나쁜 음식들로 아이들을 유혹해 충치가 생겨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한다.

이때 건강대장 초몸이와 튼튼이가 양치를 잘하면 몬스터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아내고 치야요정에게 배운 양치법으로 양치를 열심히 해서 예

쁜 치아를 지킬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화려하고 재미있는 레이저쇼와 어린이와 함께하는 신기한 마술공연, 다양한 캐릭터 인형과 신나는 노래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공연 종료 후에는 캐릭터 인형과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도 마련됐다.

시는 이번 공연을 통해 아이들에게 올바른 구강 관리 방법과 치아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지역교육활성화포럼 개최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안성균)는 지난날 31일 인천, 전남 곡성, 충북 괴산 등 전국 교육중간지원조직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역교육활성화포럼'을 개최했다.

'교육중간지원조직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전국 각지에서 운영 중인 교육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사례 소개와 더불어 참석자들이 교육중간지원조직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먼저 김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전문관은 인천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사례를 발표하며 "교육은 교육청만의 영역이 아닌,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신정하 곡성군미래교육재단 본부장은 지자체 중심의 협력 방안으로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사례를 소개하며 "여

러 교육주체들과의 벽이 없는 소통을 통해 민간 영역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임진희 괴산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민간 중심의 협력 모델인 괴산군 사례를 소개했다.

괴산군은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한 공교육 혁신과 정주 의식 확산을 위해 행정, 교육지원청, 학부모 단체 등이 협력해 괴산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현재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는 이번 포럼 개최를 계기로 전주 지역 교육중간지원조직인 센터가 해운 역할을 되돌아보고, 향후 지역 교육 주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발굴·운영할 계획이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